◉ 慶熙大·高麗大·浦項工大, 모스크바大와 교류협정

경희대는 지난 4월 30일 소련 모스크바국립대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다. 이를 계기로 경희대와 모스크바대·소련학술원·소련과학자위원회는 「동북아와 亞太 지역에 있어서의 평화·안보·협력을 위한 새로운 질서」라는 주제의 국제학술회의를 5월 20일부터 나흘간 모스크바에서 공동 개최하였다. 한편, 고려대는 5월 3일 모스크바대와 학술교류 이행협정 조인식을 갖고 '95년까지 학술 연구 및 교육 활동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포항공대도 5월 5일 모스크바대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교수 및 학생의 상호 파견·초청, 교수·학생들의 공동 연구보고서 교류 등을 협의했다.

◉ 東國大, 모스크바商大와 자매결연

동국대는 4월 24일 소련의 모스크바상업대학 총장의 예방을 받고 양교 간의 자매결연에 따른 사전 협의 및 가조인식을 가졌다. 양교 총장은 학술·문화 분야의 교류를 통하여 학교의 발전은 물론 한·소 간의 유대 강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한편, 모스크바상대 총장은 4월 25일 동국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련의 경제개혁과 투자환경'이라는 논제로 특강을 실시하였다.

◉ 西江大, 소련국립국제관계대학과 자매결연

서강대는 4월 17일 소련국립국제관계대학과 자매결연식을 갖고 매년 양측 2명의 학부·대학원생 및 1명의 교수를 교환하기로 하는 등 세부 사항에 합의했다. 또한 서강대는 레닌그라드대학, 소련과학아카데미에도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협정 초안을 전달, 자매결연에 대해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韓國敎員大, 北京師大와 학술교류

교원대는 '89년말부터 북경사대와 접촉을 시작, '90년대에 '황해안의 환경조사'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 이번에 「학교의 장기적 발전과 학교의 국제화, 국제적 교류」의 목적으로 학술교류를 하게 되었다. 그 내용은 총장 상호 방문과 교수·연수생의 교환 방문 및 연수생의 단기교육, 대학원 및 학부생의 교환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慶南大, 제1회 한·소 학술회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소련과학아카데미 등 양학연구소는 지난 6월 3일과 4일 모스크바에서 「한·소 수교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경제협력」이라는 주제로 제1회 한·소 학술회의를 공동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박재규 총장이 개회식 연설을 하고 조영환교수가 '동아시아의 정치적 환경과 한반도 통일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하였다.

◉ 檀國大, 민속박물관 10돌 행사 및 세미나 개최

지난 5월 2일로 10돌을 맞은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은 10주년 기념 행사로 「제9회 학술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에서는 '일본 문화여자대학 복식박물관 소장 덕혜옹주 유물소고'라는 논제로 석주선 민속박물관장이 주제 발표하였다. 또한 이 행사의 일환으로 「제10회 출토 복식 특별전」이 5월 2일부터 10일까지 민속박물관 중앙홀에서 개최되었다.

한편, 同校 부설 한국학연구소는 5월 22일 천안캠퍼스 인문학관에서 '처용가의 문학적 고찰', '고려 중기 유학의 동향' 등을 주제로 황패강 부총장(인문대 교수) 등이 발표자로 참석하여 학술발표회를 가졌으며, 정책과학연구소도 「걸프전 이후의 동북아 형성 신질서 전망」에 관한 세미나를 6월 5일 농학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에는 남상화(호서대)교수, 이삼성(민족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이 주제 발표를 하였다.

◉ 高麗大, 아세아문제연구소 한·소학 학술회의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는 지난 5월 13일부터 14일 양일간 신라호텔에서 「제1회 한·소학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모임에는 소련에서의 한국학 연구 현황과 과제 및 한국에서의 소련학 연구 현황과 과제를 함께 고찰하기 위해 소련과학원 산하 동방연구소 소속 학자 5명이 초청되었다.

◉ 東義大, 지방의회제도연구소 개소

동의대 행정대학원 부설 지방의회제도연구소 개소식이 지난 5월 30일 공학관 6층 행정대학원에서 열렸다. 앞으로 이 연구소는 지방화시대를 맞아 독자적인 과제 연구 및 지방 공공 기관이나 민간 단체 등의 의뢰 연구, 지방의회 및 각급 지방정부의 정책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교육 연수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 延世大, 동서문제연구원 심포지움 개최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과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5월 29일 상공회의소에서 「한—미얀마르 경제협력」을 주제로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미얀마르의 경제 상황과 전망을 우리나라 업계와 학계 및 전문 연구 기관에 홍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이번 심포지움에는 탄윤박사와 우산딘 노동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同 연구원에서는 6월 4일 동교 알렌관 회의실에서 「한·소 정상회담과 남·북한 관계」라는 주제로 제주도 회담 이후의 한·소 관계를 학문적 차원에서 재조명하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한구(세종연구소) 박사의 '한·소 정상회담과 한·소 경제협력전망'에 대한 주제 발표와 최평길(연세대)교수의 '소련의 변화와 남·북한 관계전망' 주제 발표 및 김동성(중앙대)교수의 '중국의 신국제질서관과 한·소 관계'라는 주제 발표가 있었다.

◉ 濟州大, 동아시아연구소 세미나 개최

지난 6월 4일 「신국제질서의 전개와 한반도 통일」이라는 주제의 통일문제세미나가 제주대 동아시아연구소 주최로 열렸다. 오기평(서강대) 교수의 '걸프전 이후의 동북아질서와 한반도', 장원석(제주대) 교수의 '페레스트로이카의 현황과 전망', 고성준 교수의 '독일 통일의 과정과 현실'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 忠南大, 일본 北海道大와 국제학술대회

충남대 공대와 일본 북해도대학은 지난 6월 11일 충남대 공대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에는 시바타 타구지(북해도대 공학부장) 교수를 비롯하여 4명의 교수가 참석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논문 발표와 토의를 하였다.

한편, 한국잡초학회 10주년 기념학회가 5월 18·19일 충남대 농과대에서 개최되었다. 영국·미국·일본·대만의 관련 학자를 비롯한 국내의 많은 학자들이 참석한 이날 학회에서는 모두 32편의 관련 논문이 발표되었다.

◉ 國·公立 총장단회의, 국·공립대 예산 5백억 원 요구

지난 5월 24일 釜山水産大 본관 교수회의실에서는 전국 14개 국·공립대학교 중 11명의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총장단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현재 국·공립대학의 열악한 실험·실습 기자재 부족 현상과 연구·지원 시설 등을 대폭 확장할 것과 이러한 교육의 구조적 취약성 극복을 위해 내년 예산부터 5백억 원씩을 지원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 서울大 사회학과, 교수 임용에 학생 의사 반영

서울대 사회학과는 지난 6월 3일 교수회의실에서 교수 전원과 학부·대학원생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교수 임용 과정에 학생 의사 반영을 골자로 하는 결정 사항을 확인했다.

이 모임에서의 주요 결정 사항은 ① 앞으로의 신임 교수 충원에서는 대학원생들의 학문적 관심 분야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공채 분야를 선정하며, ② 공채 지원자는 최소한 국내에서 한 학기 이상의 강의 경력을 가져야 하고, ③ 사회학과는 공채 지원자들의 연구 및 강의 경력을 대학원생들이 공람하도록 하며 공개 발표회를 갖게 하여 이에 대해 대학원생들이 학사위원회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 서울大, 개교 이후 첫 직선총장 선출

서울대가 7월중 전체교수회의에서 개교 이후 첫 직선 총장을 선출하게 된다. 현 조완규 총장의 임기가 오는 8월 13일 만료됨에 따라 6월 27일까지 19개 단과대학에서 선출된 19대 총장후보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총장 자격 기준 설정 및 후보 대상 심사작업을 거쳐 7월 11일까지 5명의 총장 후보를 지명하게 된다. 전임강사 이상 1천 3백 23명 교수들은 5명의 총장 후보 중 최종 후보 2인을 직접투표를 통해 선출하게 된다. 이 2명 중 교육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게 된다.

서울대는 지난 '88년부터 총장선임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 전체 교수들을 상대로 한 설문 조사 및 공청회를 거쳐 '89년 8월 '서울대학교 총장후보추천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이 규정안은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현직 총장의 공식 요청에 의해 각 대학별로 위촉 과정을 밟아 후보선정위원을 선출하고, 50명 이내로 구성된 '총장후보선정위원회'가 총장 선출에 따른 모든 실무를 맡게 되어 있다.

◉ 全國 私立大 圖書館협의회 정기총회

전국 사립대 도서관협의회가 5월 31일 조선대에서 제17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조선대가 맡아왔던 '90년 전국 사립대 도서관 업무를 차기 회장교인 홍익대로 이관하였다. 전국 사립대 도서관협의회는 올해로 발족 19년째를 맞는데 매년 사서연구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전국 사립대학교 도서관 현황 및 디렉토리」라는 회지를 정기적으로 간행하고 있다.

◉ 4년제 大學, 올해 28개 法人 申請

교육부가 '91년도 4년제 대학 신설신청('93년 개교) 접수를 마감한 결과 19개 법인·개인이 신규 설립을, 성공회신학교 등 9개 학교가 대학으로의 개편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해보다 6개大가 증가된 것으로 환경공대, 전자정보대, 국제관계대 등 특성화대학 설립 신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설립·개편계획 승인 요청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대학신설(19교)

安山大學(경기 안산, 15科 6백 명), 信興大學(경기 의정부, 5科 4백 명), 동우工科大學(강원 속초, 10科 4백 명), 東海大學(강원 속초, 9科 7백 20명), 영산국제관계대학(충북 영동, 10科 4백 명), 永同工業大學(충북 영동, 10科 4백 명), 大田外國語大學(대전 서구, 13科 7백 명), 大田電子情報大學(대전 동구, 10科 5백 60명), 中原工科大學(충남 예산, 14科 6백 80명), 漢民族大學(충남 청양, 30科 1천 7백 70명), 서정환경工科大學(전남 담양, 7科 3백 20명), 大邱保健大學(대구 북구, 13科 2천 80명), 慶北工科大學(경북 영풍, 7科 4백 20명), 돈보스꼬예술大學(경북 칠곡, 9科 4백 20명), 위덕大學(경북 경주, 10科 4백 명), 金泉大學(경북 금천, 5科 4백 명), 東南大學(경남 거창, 19科 8백 20명), 三南工業大學(경남 거창, 10科 4백 명), 南濟州大學(제주 남제주, 13科 5백 60명)

△ 대학개편(8교)

한국성서신학대학(한국성서신학교 개편), 성공회신학대학(성공회신학교 개편), 百濟신학대학(漢城신학교 개편), 나사렛신학대학(나사렛신학교 개편), 中部신학대학(중부사회산업학교 개편), 한일신학대학(한일신

학교 개편), 대구신학대학(대구신학교 개편), 영남신학대학(영남신학교 개편)

△ 전문대에서 대학 개편(1교)

大林대학(대림공전 개편)

◉ 政府, 기술대학 9개 新設 추진

정부는 기술 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1천 3백억 원을 투입하여 전국에 9개 기술대학을 신설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기술대학은 창원·부산(기계기술대학, 1천 명), 구미·대구(전자기술대학, 1천 명), 여수(화공기술대학, 4백 80명; 신소재기술대학, 4백 80명), 춘천(컴퓨터기술대학, 1천 명), 천안(자동차기술대학, 1천 명), 수원(반도체기술대학, 6백 명), 평택(정보통신기술대학, 1천 명), 시화·반월·남동(생산기술대학, 1천 명) 등으로 총 정원은 7천 5백 60명이다.

▲ 敎授 補職 인사 ▲

• 慶熙大
〈수원캠퍼스〉
학생생활연구소장 : 장일순

• 公州敎大
초등교육연구소장 : 문낙진
연수원장 : 신통철

• 光云大
부총장 : 金昌煜

• 韓國敎員大
박물관장 : 정영호
수학교육연구소장 : 박한식
환경과학연구소장 : 정용승
예술교육연구소장 : 박주영
학교보건체육연구소장 : 김영무
교육과학연구소장 : 김병성

• 大邱大
교육대학원장 : 정승일
산업정보대학원장 : 나인엽
경상대학장 : 김인환
공과대학장 : 조정석
자연대학장 : 박성배
가정대학장 : 박영선
미술대학장 : 김 원

• 서울大
치과대학장 : 李勝雨

• 서울産業大
산업대학원장 : 문종만
교무처장 : 한종옥
학생처장 : 고을한
제1공학부장 : 변용규
제2공학부장 : 김민수
조형학부장 : 신권희
시청각매체연구소장 : 한현우
산업기술연구소장 : 류제구
전자계산소장 : 석상기
학생생활연구소장 : 주재인
대학교육방송국주간 : 김성태
대학신문사주간 : 신기상

• 서울市立大
총장 : 신 홍
교무처장 : 이규목
기획실장 : 안두순
도시행정대학원장 : 윤재풍
산업대학원장 : 유만형
법정대학장 : 최양수
공과대학장 : 노희일
문리과대학장 : 이두형
교양과정부장 : 진보영
외국어어학원장 : 이규목
학생생활연구소장 : 이경우
도시새마을연구소장 : 심정근
산업경영연구소장 : 정제철
신문사주간 : 이병혁
방송국지도교수 : 김동수

• 誠信女大
교무처장 : 신혁균

• 曉星女大
학생처장 : 趙成鎬
방송국주간 : 張仁鉉